

지역 소식 통

정읍시보건소, 오는 19일
무료 피부질환 검진

정읍시보건소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피부질환 이동 검진을 실시한다. 한센병을 포함한 다양한 피부질환을 진단하고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시 보건소는 오는 19일 보건소 2층 보건교육실에서 피부질환 무료 이동 검진을 진행한다. 이번 검진은 한국한센복지협회 전북특별자치부와 연계해 운영되며, 피부과 전문 의료진이 직접 진료를 진행한다.

검진 대상에는 무좀, 습진, 피부건조증 등 다양한 일반 피부질환이 포함되며, 필요 시 피부도포제 등의 약물 처방도 제공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검진은 나균에 의해 발생하는 2급 법정 감염병인 한센병의 조기 발견에 중점을 둔다. 한센병은 만성 감염성 질환으로 피부와 신경을 침범해 증상을 유발한다. 전염력은 낮지만 치료가 지연될 경우 신경계 합병증으로 인해 사지의 무감각 등 장애를 초래할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필수적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가축방역 심의회
예방 백신 21종 선정

정읍시는 지난 14일 관계부서와 생산자단체, 공수의협회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고,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현재 시는 주요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소독시설(용계동)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농가가 자체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소독약품을 배부하는 등 차단 방역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맞춤형 일자리 정책 발굴 박차

정읍시, ‘일자리창출위원회’ 신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위원으로 합류

정읍시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적 정책 발굴에 나선다. 시는 지난 14일 오후 첫 ‘일자리창출위원회’를 개최하며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정책추진단’에서 탈피해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창출위원회’로 새롭게 개편된 후 첫 회의다.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합류했다.

위원회는 학계, 일자리 관련 공공기관, 소상공 기업 언론 시의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8명의 외부 전문가가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읍시 일자리대책 세부계획’을 중심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4대 핵심 전략과 14대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4대 핵심 전략으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브릿지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 산업 일자리 확대 △상생형·맞춤형 공공일자리 창출·연계 △청년 취업 및 창업 지원책 확

대 등이 제시됐다.

또한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장려, 고용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포상 추진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기업의 일자리 창출 기여도를 평가 우수기업을 선정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내 고용 증대를 촉진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청년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Mac’ 사업을 추진해 구인·구직자의 만남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과 산업 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자-산업 일자리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정부출연 연구기관 소통강화” 당부

주요 간부회의서 강조… 적극행정 실천 주문

권익현 부안군수가 전북특별자치도에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의 소통강화를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7일 열린 주요 간부회의에서 “공모사업 참여나 국가예산 확보 등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적 네트워크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출연 연구기관은 정책 동향을 분석해 정부 및 전북자치도의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연구기관과 협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활용한 정보 공유를 강화해 군의 정책 발전을 위해 적극



극 소통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권익현 군수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장려하기 위해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적극행정을 실천한 우수 부서와 개인에게는 마일리지 제도를 통해 인센

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러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따뜻한 날씨와 봄철 나들이 시즌을 맞아 부안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부안상설시장 등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철저히 실시해 달라”며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부안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공공화장실 등 민가가 소홀한 시설물이 없는지 면밀히 점검해 환경정비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군, 개발행위허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 도입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필증 발급까지 온라인 원스톱 제공

부안군은 그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려면 부안군청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것을 앞으로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IPSS)가 도입됨에 따라 인터넷(www.ipss.go.kr)으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는 개발행위허가 신청부터 실시간 처리 상황 확인, 준공검사 필증 발급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시스템으로 민

원인의 편의를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란 토지이용 및 개발 인허가를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로서 기존에는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출력해 방문 접수하고 이후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여러 차례 군청을 방문해야 했으나 IPSS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인허가 신청을 할 수 있고 개발행위 준공필증도 받아볼 수 있다.

군 또한 개발행위허가 업무 전반을 데이터로 처리하게 돼 개발행위허가 정보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고 민원 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져 보다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군은 통합인허가지원서비스를 이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 접수 방식(방문 및 우편 접수)과 병행해 온라인 접수를 이달까지 실시하고 오는 4월부터 전면 전산화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시티투어버스’ 운영

고인돌유적지 등 주요관광지 · 문화관광해설사 동승… 매주 토요일

고창군이 고인돌유적지 등 주요관광지를 한번에 돌아볼 수 있는 시티투어 버스를 매주 토요일 성황리에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고창시티투어버스는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 동승해 관광자별 해설, 맛집 소개 등 고창 전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 운행노선을 계절별·축제별로 각기 다른 관광지로 구성해 관광객의 수요맞춤형 노선을 제공하고 재방문을 이끌어 낼 방침이다.

고창시티투어 노선은 △3월(문곡습지-선운산 고인돌박물관-고창읍성) △4월5일(벚꽃축제)·벚꽃 축제장-선운산-고창읍성, △4월12일/4월19일/4월26일/5월3일/5월11일(청보리밭 축제장-무장읍성-선운산비림공원)으로 짜여졌다.

이용요금은 1만원이다. 자세한 사항



안내 및 예약은 전화예약(063-560-2958) 또는 고창군청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https://www.gochang.go.kr/reserve/index.gochang>)에서 할 수 있다.

시티투어 이용 승객은 “고창 시티투어 버스는 지역에 깊은 애정을 가진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여 재미있고 유익한 해설을 들을 수 있었다”며 “고창 명소 곳곳을 편하게 다닐 수 있어 좋았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정읍시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앞두고 시가지지구·연제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토지 경계 정비와 맹지 해소를 통해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 이용 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14일 정읍시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시가지지구(정다운요양병원방송통신대 정읍학술관 일원)와 연제지구(C사커리 구 소방서 일원)의 토지 소유자·지역 주민들이 참석해 지적재조사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계획을 공유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적도의 경계가 현재 토지 이용

실태와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국책사업이다. 시는 2012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해오며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맹지 해소, 도로 접속 문제 해결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추진 절차 △경계 설정 기준 △조정금 산정 방식 △토지소유자협의회 구성·역할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 이후에는 책임 수행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을 진행하며 토지소유자들과의 경계 협의를 거쳐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

고창군이 안전한 민원실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최근 군청 민원실과 읍·면 민원실에 안전가림막을 설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설치된 가림막은 코로나19에 대응한 비말차단용으로 민원창구 직원을 보호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교체된 안전가림막은 폴리카보네이트로 제작, 충격에 강하며 높이가 바닥에서 180cm 이상, 두께는 0.5cm 이상으로 제작되어 단단히 고정됐다.

군은 휴대용 보호장비인 웨어러블 캠도 추가 구입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2023년 첫 도입해 군청 민원실 5대, 읍면 민원실 각 1대씩 배부해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민원창구 전 직원에

게 지급하기 위해 21대를 추가 구입한 것이다.

이는 최근 날로 증가하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외에도 군은 민원담당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청 민원실 내 안전요원의 상시 근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경찰서와 합동 모의훈련 실시, 군청 민원실 및 읍면 민원실 내 비상벨 설치, 직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 등 공무원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